



시사프리신문

열정적인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돋보이네!

강북구의회,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12명 전원이 질의나서



이영심 의원



박문수 의원



박성열 의원



이성호 의원



김동식 의원



강남연 의원



이종순 의원



이수연 의원



김도연 의원



구본승 의원



이백균 의원



최 선 의원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 10월 28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첫 번째 구정질문에 나선 이영심 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방안, 고등학교 신설 등”에 대한 질문에 “시민단체가 주가 되는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문수 의원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 CCTV설치 및 관리 등” 질문에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 전시행정을 탈피해 복지예산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원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도서관 설립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으며, 박성열 의원의 “강북구 관광수입

및 세수확대를 위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등”에 대한 질문에 “국립공원 지정이후 관광용 케이블카 건립이 어렵지만, 향후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케이블카 설치 추진동향과 지역주민 여론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하겠다.” 이성호 의원의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해제, 도로명 및 공공기관명에서 우리구 이름찾기 등”에 대한 질문에 “지역개발을 위해 북한산의 경관을 보호하면서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과 층수 등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고 또한 우리구에 있는 도로와 공공기관 명칭이 도봉로, 도봉세무서, 성북교육청 등으로 되어있어 외아해 하는 구민이 많아 구민의 의견으로서 적극 건의하여 해결하겠다.” 김동식 의원의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분배, 마을문고 운영 및 도서관 등”에 대한 질문에 “21세기 사회는 시민단체 제3섹터를 이루고 있어 사회단체의 역할이 높아 구예산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여 우리구정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또한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를 연결하는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 및 도서관 중 사업 등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강남연 의원의 “구청장의 선거공약과 현재공약의 차이점 및 향후계획, 각종 행사진행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공약사업추진보고회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중이며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현황을 공개하겠고 또한 각종 행사는 강북구민화와 단합이 되어야하는 자리임에 취지를 인정하고 향후 이를 위하여 최선을

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종순 의원의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 공공청사의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규모 및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복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추경에 반영된 토지매입 계약금 13억을 급년 내로 계약에 체결될 수 있도록 협의의 진행 중이고 또한 소방에 필요한 설비 등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심야시간의 정기적인 순찰 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수연 의원의 “대규모시설건립에 대한 재원대책과 향후 복지수입증대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현황을 공개하겠고 또한 각종 행사는 강북구민화와 단합이 되어야하는 자리임에 취지를 인정하고 향후 이를 위하여 최선을

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종순 의원의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 공공청사의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규모 및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복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추경에 반영된 토지매입 계약금 13억을 급년 내로 계약에 체결될 수 있도록 협의의 진행 중이고 또한 소방에 필요한 설비 등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심야시간의 정기적인 순찰 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수연 의원의 “대규모시설건립에 대한 재원대책과 향후 복지수입증대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현황을 공개하겠고 또한 각종 행사는 강북구민화와 단합이 되어야하는 자리임에 취지를 인정하고 향후 이를 위하여 최선을

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종순 의원의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 공공청사의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규모 및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복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추경에 반영된 토지매입 계약금 13억을 급년 내로 계약에 체결될 수 있도록 협의의 진행 중이고 또한 소방에 필요한 설비 등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심야시간의 정기적인 순찰 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수연 의원의 “대규모시설건립에 대한 재원대책과 향후 복지수입증대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현황을 공개하겠고 또한 각종 행사는 강북구민화와 단합이 되어야하는 자리임에 취지를 인정하고 향후 이를 위하여 최선을

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종순 의원의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 공공청사의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규모 및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복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추경에 반영된 토지매입 계약금 13억을 급년 내로 계약에 체결될 수 있도록 협의의 진행 중이고 또한 소방에 필요한 설비 등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심야시간의 정기적인 순찰 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수연 의원의 “대규모시설건립에 대한 재원대책과 향후 복지수입증대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현황을 공개하겠고 또한 각종 행사는 강북구민화와 단합이 되어야하는 자리임에 취지를 인정하고 향후 이를 위하여 최선을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0년
11월 4일
(목요일)
- 2 면 -

시사프리신문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위해 엄격한 심사기준 정해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외유성 해외연수와 차별하기 위해 이 같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구민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앞서 박문수, 최선 의원 이외에도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 김점숙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공동대표, 박현주 경제정의실현연합회 강북학원폭력예방대책위원회 기획실장 등 3명의 외부 인사를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문수 의원이 호선했으며,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4조 2항에 의거 여행의 필요성 및 여

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 타당성,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최찬환 교수는 "공무원이나 정책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옳은 시각을 갖고 해외에서 문물을 빨리 가지고 오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다"며 "공무국의 전 학자적으로 연구하는 마음으로 체크리스를 작성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연구를 위해 초청강의를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공무국외여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후 의원별로 보고서 형식의 소감문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영상 등 생동감 있는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외유성 해외연수가 아닌 진정한 구정발전에 기여하



박문수의원

는 계기로 만들자고 다짐하면서 원안을 가결했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교토(니시키 재래시장, 교토사람·마을교류관가스카주민복지협의회, 교토시 보육종합지원센터, 어린이미래관, 후시미오오테 스지 재래상점가), 나라(나라

마을만들기 센터), 오사카(오사카를 좋게하는 모임)을 선정하고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행정시설, 복지문화, 교통 등 우수 행정시설을 체험하여 견문을 넓히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주민복지정책을 구현함은 물론 국제적 지식과 감각을 가지고자 이번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공무국의 여행 사전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공무국의여행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어 이러한 규정에 의거 강북구의회는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자기점검과 계속적인 학습 및 개선의 기회를 진행하여 실시 현황 및 보고서 등재여부 등에 대한 정례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영일기자